

민 성 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 순환적 생명력의 조형화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나 수 정

## 논문개요

생명력은, 모든 생명이 갖는 생명의 근원, 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예술가에게 생명력은 자신의 작품이 자신을 잘 비출때로, 이는 자신의 미적 체험이 자신의 내부에서 발산되어 작품으로서 승화될 때 가장 잘 나타나게 된다.

본인의 작품과 논문에서 일관된 관심의 대상은 순환을 통한 생명력의 이미지 표현이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탄생과 죽음의 그 순간의 모습을 통해 생명력의 이미지들이 갖는 각각의 의미들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순환적 생명력의 이미지로 형상화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주제설정에 대한 견해와 작품의 정신적 배경, 조형적인 표현방법 및 개별 작품 설명등 총 3장으로 구성하였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자연속에서 찾게된 주제설정에 대한 견해와 자연속 경험에 의한 미적 체험이 작품으로 의미를 갖게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범위를 설명하였다.

제 2 장 본론에서는 작품의 정신적 배경으로, 구체적인 자연속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자연의 이미지가 불교사상의 '윤회'를 통해 소멸과 생성의 의미로서 재탄생되며, 이를 생명력의 이미지로서 표현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소재들과 표현 방법들을 설명하였다. 또한 개별 작품 설명을 위해 작품사진과 작품제작방법, 내용등을 서술하였다.

제 3 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본인의 작품세계를 정리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작품의 정신적 배경 .....	3
1) 순환을 통한 생명력의 이미지 .....	3
2) 생성과 소멸의 순환성 .....	5
2. 조형적 표현방법 .....	8
1) 소재의 상징성 .....	8
2) 작품의 표현방법 .....	9
3. 작품설명 .....	12
III. 결론 .....	28

## 참고 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무제, 고목, 합성수지, 대리석 가루, 800x980x1800mm, 2003 .....	12
【작품 2】 무제, 고목, 합성수지, 대리석 가루, 750x750x1600mm, 2003 .....	14
【작품 3】 무제, 고목, 합성수지, 동파이프, 1240x1185x2410mm, 2003 .....	16
【작품 4】 무제, 고목, 합성수지, 대리석 가루, 500x320x880mm, 2003 .....	18
【작품 5】 무제, 동, 740x480x550mm, 2003 .....	20
【작품 6】 무제, 동, 600x480x900mm, 2003 .....	22
【작품 7】 무제, 동, 미송, 가변설치, 2003 .....	24
【작품 8】 무제, 동, 오석, 420x315x360mm, 2003 .....	26

# I. 서론

자연은 일정한 형태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운동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운동은 다양한 자연현상을 만들어 내며, 이는 인간들에게 심적, 환경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어 인간들로 하여금 자연을 탐구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했다. 특히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자연속의 다양한 현상들은 미적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대상이 되었으며 자연을 통해 체험한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구체화하여 자연의 본질을 탐구하게 했다.

이러한 자연의 본질을 탐구함에 있어서, 자연이란 인공적인 도움없이 만들어졌고 인간에 의해 변형되지 않은채 존재하는 모든 것, 또는 산, 강, 바다, 초목, 동물, 비, 바람처럼 저절로 생성하고 소멸이 이루어지는 일체의 것을 의미<sup>1)</sup>하는데,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 '생성'과 '소멸'이라는 순환성은 자연을 변화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모든 자연의 생명들은 생(生)과 사(死)-생성과 소멸-의 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며, 이 순환의 고리속에서 다양한 자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순환성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명의 근원과 생명력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져준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인은 우연히 경험하게 된 죽음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잊고 있었던 생명에 대한 존재감을 깨달게 되었고, 이러한 존재감은 생명력이라는 이미지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미적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본인은 자연에서 체험한 생명에 관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생성'과 '소멸'이라는 구체적인 생명순환체계 이미지를 본인의 조형 언어로

---

1) 한국세계대백과사전, (서울: 동서문화, 1997), p.13309

표현하는데 연구 목적을 둔다.

연구범위로 【작품 8점】을 통하여 생성과 소멸, 즉 탄생과 죽음의 그 순간의 대비된 모습과 생명이 생성되는 그 순간의 순환적 생명력의 이미지를 경험에 의해 얻어진 소재들인 ‘알’과 ‘고목’의 상반된 두 소재로 대비시키고 또한 ‘알’자체의 변화로서 순환적 생명력의 이미지로 조형화하고자 했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본인이 경험한 순환적 생명력의 이미지와 그 의미를 바탕으로 윤희를 통한 생명관을 순환적 생명력의 이미지를 표현함에 이론적 근거로 제시하며, 순환적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해 도입하는 소재들의 의미와 표현방법을 조형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 II. 본 론

### 1. 작품의 정신적 배경

#### 1) 순환을 통한 생명력의 이미지

순환을 통한 생명력의 이미지는 인상깊은 자연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가공되어 있지 않은 자연상태 그대로의 썩은 고목 세그루는 죽은 상태에서 오래 버려져 있었던 탓인지 조각을 하기에 적합해 보이지 않았으며,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은 부분을 양분 삼아 존재하는 수 많은 반갑지 않은 생명체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좋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들 생명들의 존재감은 죽어 있는 고목의 크기만큼 크게 느껴졌다.

이와같이 죽어 있는 고목을 통해서, 얻어진 느낌들은 생명력을 느끼게함과 동시에 죽음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이 생명들이 또 다시 다른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자연의 반복된 생태에 관해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인상깊은 경험은 자연의 질서속에 순환적 생명력이라는 이미지를 갖게함은 물론, 생명의 근원과 그 생명력이라는 물음을 갖게 했다.

자연은 생물뿐 아니라 무생물까지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통하여 일정한 형태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운동하고 있다.<sup>2)</sup>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속의 모든 생물들은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기도 하고 적자생존(適者生存)이라는 치열한 경쟁속에 살아가기도 한다. 이런 조화와 경쟁속에서 자연속 생명들은 거미

---

2) 심윤희, 『흙을 소재로한 자연의 생명력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p3

줄처럼 얽혀 있어서 다른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는 순환하는 과정에 있는 다른 생명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 질서체계를 갖는다. 따라서 탄생과 죽음, 개화와 낙엽, 솟음과 꺼짐등의 자연현상은 각각의 관련속에서 순환 요소를 가지고 서로의 존재를 더욱 확실하게 해준다.<sup>3)</sup> 즉, 생성과 소멸이 대비된 그 순간은 순환에 의해 생겨난 새로운 생명의 생명력을 가장 크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자연의 순환적 질서속에서 얻어지는 생명의 존재감과 생명력은 인간과 사회, 자연의 순환을 통하여 더 크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인간이 만드는 사회를 곧잘 자연과 대립되는 존재로서 인식하지만 자연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회이며 사회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며, 인간들도 이러한 사회속에서 살다가 한줌의 흙이라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 오래전부터 자연의 섭리로서 사회를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이 속에서 인간은 인간 생명의 근원과 생명력을 인식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인간과 사회, 사회와 자연, 자연과 인간등, 서로의 순환에 의해 그 순간순간은 사회의 생명력, 자연의 생명력, 인간의 생명력들을 나타내게 한다.

순환하는 것에는 어느 하나 우선되는 것이 없다. 다만, 서로의 관계에 의해 순환할 뿐이다. 순환이 멈추지 않는 한 생명은 계속 이어진다. 이 속에서 생명의 존재감과 생명력이라는 것이 파생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연의 순환체계 이미지는 세상을 순환의 이치로서 이해함과 동시에 생명의 존재감을 인식하게 해주었고, 이를 작품속에서는 정적일뿐 아니라 능동적인 다양한 이미지로서 표현할 수 있게 했다.

---

3) 장현숙, 『생성과 소멸의 조형화 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p5

## 2) 생성과 소멸의 순환성

자연의 질서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철학, 종교, 과학등을 통하여 계속되어 왔다. 특히 자연의 순환질서는 모든 우주 자연속의 존재들을 설명하는 근본으로서, 순환을 설명하는 말과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를 뿐, 그 근본적인 '순환성'은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인은 자연의 순환성을 동양의 시간적인 순환성으로 인식하고, 불교 사상의 윤회에 나타난 순환성과 이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연기설<sup>4)</sup>을 통한 생명관을 대입시켜 보고자 한다.

윤회는 불교적인 관점의 순환으로서 그 의미와 뜻이 방대하다. 윤회는 중생들이 여러 세계를 수레바퀴가 돌아가듯 생(生)과 사(死)를 끝없이 되풀이 한다는 의미에서 윤회생사(輪廻生死)라고 한다. 시간적 윤회의 관점으로, 우주의 물리적 순환도 윤회요, 우주의 자연변화, 가령 춘하추동(春夏秋冬), 과거 현재 미래의 유전(流轉)도 윤회이며, 어김없이 교대하는 낮과 밤도 윤회이다. 또한 공간의 윤회로는 동서남북의 방위도 윤회이며 바람과 구름이 엉켜 비가 되고 빗물이 다시

---

4) 연기설-인연이라고도 한다. 의존하다.(paticca), 함께(sam), 일어난다(uppada)는 뜻으로 사물이나 사건의 원인 인과관계를 뜻하는 말이다. 무수한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서로 연관되어 성립하므로 이들 원인과 조건이 없다면 자연이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독립해서 실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도 없으며 서로 의존하여 변화해 가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생멸하고 변화하며 모였다, 흩어졌다하는 과정이다.

곽철환, 『불교 길라잡이』, (서울; 시공사, 1995), p28

연기설은 불교적인 의미로 현실적 삶에 대한 고찰을 포함하여 '나'라는 끊임없는 존재에 대한 추구이며 그 끝은 깨달음으로 규정하여 반복되는 사람의 생애를 말한다. 그러한 의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상을 숭배하는 제례나 명절 또한 같은 의미로, 죽은 사람에 대한 관계가 결국 현세의 형태로 나타나 모두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http://opendic.naver.com>

태양에 증발되어 수증기로 변했다가 구름이 되고, 구름은 다시 비로 변해 한바퀴 도는 것도 자연의 윤회현상이다.<sup>5)</sup>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단지 빠르고 늦은 것의 차이가 있을뿐 우주의 원리로 봤을 때 불교적 관념에서의 생명은 한 순간의 찰나(刹那)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명에 관한 육도윤회<sup>6)</sup>(六道輪廻)로서 본인은 이러한 순환성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에서 경험한 생성과 소멸의 순환성을 통한 생명력을 이해하고자 했다.

불교에서 연기의 원인과 결과가 윤회의 주기를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연속 생성과 소멸이 순환의 주기를 만듦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소멸하므로 저것이 소멸한다는 찰나무상(刹那無常), 찰나생멸(刹那生滅)<sup>7)</sup>의 시간적인 연기설<sup>8)</sup>은 생성과 소멸이 순환하는 그 순간을 통해 생명력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본인의 작품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윤회를 만드는 연기는 자연속 생명들이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서 생(生)과 사(死)의 순환을 거치는 것처럼 모든 현상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서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결과물인 장미꽃이 피기위해 적당한 토양과 씨앗, 기후등의 원인이

---

5) 검색어:윤회 <http://opendic.naver.com>

6)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하는 세계는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하여 육도윤회(六道輪廻)라 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는 우리들 앞에 축생, 예를 들어 파리나 모기등도 전생에는 인간이었던 것이 바뀌어 태어났는지 모르며 장차 우리들이 저승에서 파리나 모기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불교의 순환적인 생명관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으로 하나의 풀뿌리라도 하찮게 여기지 않음은 이번 생에서 업을 쌓지 않음으로 다음 생을 준비하는 불교적 생명관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7) 찰나생멸 -지극히 짧은 시간. 불교에서의 최소 시간단위로, 산스크리트의 크샤나(ksana)를 음역한 말이다. 일념(一念)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불교철학에서 찰나는 물질적·정신적, 특히 정신적 현상의 순간적 생멸(生滅)을 설명할 때 쓰인다. 모든 존재가 찰나에 생멸을 계속하는 것을 찰나생멸이라 하며, 현재의 1찰나를 기준으로 앞의 찰나를 과거, 뒤의 찰나를 미래라고 하며 이를 합쳐 찰나 3 세(世)라 한다.

검색어:찰나 <http://www.sejon.or.kr>

8) 광철환, 『불교 길라잡이』, (서울; 시공사, 1995), p28

있어야 결과인 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9)</sup>

이처럼 자연속에서 생성과 소멸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생명력의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낙엽이 떨어져 뿌리로 가뭇이 자연에서 왔다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순환의 순간의 모습은 찰나무상(刹那無常) 찰나생멸(刹那生滅)의 반복적인 운동으로 존재의 끊임없는 변화인 생명력을 확인 할 수 있게 한다.

결국 자연의 순환을 통하여 얻고자 함은 생명력이다. 생명력은 살아있는 것들의 힘으로서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등 어느 곳에서든 존재하며 이들 각각은 서로의 순환을 통하여 생명력을 확인할수 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속에서 생명력은 자연과 사회의 관계속에서 인간들의 생명력이 발휘 된다. 예를들면 자연의 큰 재앙의 위기 그 순간에 인간들은 삶과 죽음의 두 갈래속에서 그들의 생명력을 발견하게 된다. 죽음속에서도 생명은 태어나며 그 속에서 인간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며 사회의 생명력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순환구조의 개념은 자연뿐만 아니라 여러 생명들 사이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궁극적인 것은 생명력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죽어서 한줌의 흙이 되고, 나무는 죽어서 또 다른 생명에게 생명을 주며, 모든 생명들이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 속에서 일어나는 순환의 찰나(刹那) 모습은 생명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비로서 본인은 이러한 순환 그 순간의 모습을 작품에 도입하여 조형화하였으며 이론적 근거로서 제시하였다.

---

9) 앞의 책 , 『불교 길라잡이』, (서울; 시공사 ,1995), p28

## 2. 조형적 표현방법

자연의 다양한 현상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표현하고자 하는 미적 충동의 대상이 되었다.

자연계는 자기형성에서 항상 다른 것들과 상호연관하여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자연은 일정불변의 법칙에 머물지 않고 대립하는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변화하고 운동하고 있으므로 다른것에는 있을 수 없는 독특한 형태를 만들게 된다.

이 속에서 자연속의 형태들은 오랜시간을 거치면서 끊임없는 변화와 운동속에 가장 조화로운 형태를 구축해왔다. 이들 형태들은 자연계의 원칙과 질서속에 형성된 것이므로 이들 형태속에는 자연의 원칙과 질서가 내재하게 된다. 이처럼 조형의 원형으로서 자연 형태는 문화사나 미술사의 여러각도에서 조형활동에 대하여 지도적인 위치였으며, 자연의 여러 가지 형태와 표본이 조형의 중심으로 선택되었던 사례가 많이 있었다.<sup>10)</sup>

이에 본인 작품의 조형적 표현방법도 자연의 형태에서 채택한 형태로 표현하였다

### 1) 소재의 상징성

본인의 작품속에서 '알'과 '나무'는 상징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두 소재는 모두 자연속에서 얻은 소재이다.

작품속에서 '알'은 모든 자연의 생명을 함축한다. '알'은 자연속에서 생명의 탄생을 예고하며 이는 생명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암시하기도 한다.

'알'은 타원의 구체로서 이를 '난형'이라 하며, 난형은 구면전개에 있어서 가장

---

10) 한석우, 『입체조형』, (서울: 미진사, 2001), p18

아름다운 형태이다. 이러한 구체의 기본적 특징은 구심력과 원심력이 긴장된 상태로 유지되어 확산과 수렴을 공유하는 균형있는 형태로 무한한 움직임의 순환과 회전의 향상성을 가진 동적형태인 동시에 특정한 방향을 갖지 않는 정적인 형태로서, 자연속 생명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이다.<sup>11)</sup>

한편, 나무는 작품속에서 고목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나무는 고목이건 새로 생성된 것이건 소멸을 향해가며 새로운 생명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나무는 자연의 소재 중 그 형태 자체만으로 완벽한 조형미를 갖춘 소재로 무한한 생명감과 힘을 느끼게 한다. 고목이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소멸인 죽음을 뜻한다면 새롭게 생성된 나무는 태어남과 동시에 소멸을 향해 가는 것을 뜻한다.

이와같이 본인은 순환적 생명력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알’ ‘나무’의 두 소재를 대비시켜, 두 소재가 순환하는 그 순간의 이미지를 통하여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 2) 작품의 표현방법

예술은 대상을 그대로 복사하는 재현이 아니라 주관에 의해 다시 구성하는 표현이다.<sup>12)</sup>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면 작가가 자연에서 주제를 선택하는 경우, 작가가 뚜렷이 표현하고자 하는 자연의 개념을 위하여 이를 변형, 선택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작품의 세부를 정리하여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예술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한다.

---

11) 앞의 책, 『입체조형』, (서울: 미진사, 2001), p62~66

12) 이광미, 『시각예술의 이해』, (서울: 지구 문화사, 1996), p56

이러한 방법들에는 기호화된 상징·대비·결합, 연상, 통일성, 반복성, 균형 등이 있는데, 본인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방법들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기호화된 상징들을 바탕으로 작품은 표현방법에 따라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알'과 '고목'의 두 상징들로만 구성된 결합이다. 【작품1】과 【작품2】는 본인이 경험한 것을 이미지화한 작품들로, 본래의 형태에서 '알'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그 움직임들로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알'과 '고목'은 그 상징들이 대비를 이루는 것과 같이 서로 이질적인 느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서로 각각의 두 생명들을 대비시킴으로서 본인이 경험한 이미지를 재구성하여 순환하고 있는 생명력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두번째는 고목과 알과 다른 재료의 결합이다. 【작품3】과 【작품4】는 생명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이라는 요소를 결합시켰다. 특히 【작품3】은 '물'이라는 요소외에 파이프를 '가지'의 의미로서 활용하여 형태적으로 조형성을 추가하는 반면, 서로 각각의 의미를 상징할 수 있는 대비적인 요소-알, 고목, 파이프, 투명한 알-들을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그 생명력의 순환이라는 공통된 의미로 묶어서 순환하고 있는 생명력의 그 순간의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세 번째는 알 자체의 변화이다. 【작품5】와 【작품6】은 경험한 이미지에서 연산작용에 의해 구성된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5】와 【작품6】은 생명의 움직임 즉 생명력을 '태동'의 이미지로 표현한 것으로 '태동'이 갖는 움직임을 난형의 정적인 상태에서 동적인 확산의 형태로 시각화 했다.

네 번째는 '알'과 '나무'의 은유적 표현이다. 【작품7】과 【작품8】은 새롭게 태어난 생명들은 그들의 흔적을 남기며 또 다른 생명들이 태어나는 그 생명력의 이미지를 표현 한 것으로 태어난 생명속에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의 순환적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들 네가지로 분류된 작품들은 자연에서 획득한 소재들을 인위적인 형태로 바꾸기 보다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서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작품 전체에서 사용된 상징으로 된 소재를 대비시켜 순환적 생명력의 이미지로 표현했다.

### 3. 작품설명



【작품 1】 무제, 고목, 합성수지, 대리석 가루, 800x980x1800mm, 2003

## 【작품 1】 무제

크 기 : 800x980x1800(mm)

재 료 : 나무, 대리석 가루, 합성수지

제작년도 : 2003년

- 제작방법 : 1) 나무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 무늬, 그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도록 하며 고목의 속은 썩어 있었으므로 깨끗이 파내어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약품처리를 하였다.
- 2) 우레탄폼으로 그 안을 채워주고 그 위를 '알'로 마감처리를 하였다.
- 3) 표면은 자연 그대로를 살리기 위해 oil스테인과 광택제로 마감하였다.
- 4) '알'은 실리콘 틀을 성형한 뒤 여러번 찍어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처음 고목의 속을 파내었을 때 그 뒤를 따라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있었다. 알 수 없는 생명들이 꿈틀꿈틀, 그 주변을 하얗게 싸고 있는 알들....그 모습이 결코 좋게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생명력이란, 겉모습이 단단해 보이지만 검은 줄무늬도 있고 움푹움푹 패어 있는, 너무 오래 되어버린 죽은 고목과는 달리 생동감이 있었다. [작품1]은 이러한 생명력에 관해 경험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고목'과 '알'은 서로 이질적인 결합이다. 그러나 서로 각각의 상반된 두 소재, 다시 말해 죽음과 탄생을 대비시켜 그 생명력과 그 순환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작품 2】** 무제, 고목, 합성수지, 대리석 가루, 750x750x1600mm, 2003

## 【작품 2】 무제

크 기 : 750x750x1600(mm)

재 료 : 나무, 대리석 가루, 합성수지

제작년도 : 2003년

- 제작방법 : 1)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 무늬, 그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도록 하며 고목의 속은 썩어 있었으므로 깨끗이 파내어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약품 처리를 하였다.
- 2) 우레탄폼으로 그 안을 채워주고 그 위를 '알'로 마감처리를 하였다.
- 3) 나무표면은 검게 태운 뒤 광택제로 마감하였다.
- 4) '알'은 실리콘 틀을 성형한 뒤 여러번 찍어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작품 2】는 생명력에 관한 또 다른 이미지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이미지와는 달리, 나무의 갈라진 부분들에서 '알'이 조금씩 빠져나오는 듯한 이미지이다.

【작품 1】의 고목의 색과는 달리 고목의 표면이 썩어, 우연히 얻게 된 색을 그 표면을 정리하여 윤기있는 진한 고동색으로 바꾸어 주었는데, 이 색은 '죽어있음'을 뜻하는 고목을 더 강조하게 되었으며 '살아있음'을 뜻하는 흰 알과도 대비가 이루어지게 되어, 죽음과 탄생의 그 순환의 생명력에 관한 이미지를 강조해 주었다.



**【작품 3】** 무제, 고목, 합성수지, 동파이프, 1240x1185x2410mm, 2003

### 【작품 3】 무제

크 기 : 1240x1185x2410(mm)

재 료 : 나무, 동 파이프, 합성수지

제작년도 : 2003년

- 제작방법 : 1) 이 고목의 특징은 '가지'가 잘려나가거나 썩어서 없어진 부분이 많았는데, 이 부분을 고목의 형태에서 크게 변형시키지 않고 단면에 동판을 붙였다
- 2) 새로운 '가지'를 의미할 수 있는 파이프를 각 '가지'와 '가지'가 연결되는 형태로 붙여 주었다.
- 3) 알은 실리콘 틀에 투명 합성수지를 여러번 찍어내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투명한 '물'과 같은 '알'이 나무의 '새로운 가지'를 타고 나오는 이미지이다. '새로운 가지'와 투명한 '알'의 탄생 의미는 고목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과 그 의미가 다르지 않지만, 고목이 자체의 생명력을 지니게 되어 '가지'를 형성하는 능동적인 의미로서 앞의 두 작품이 고목 그 자체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적인 작품이었다면 【작품3】은 파이프 '가지'를 이용한 조형성을 고려한 작품이다.

투명한 '알'과 파이프를 이용한 새로운 '가지', '고목'의 결합은 생명의 순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파이프를 이용한 '가지'에서 투명한 '알'이 나오는 이미지는 보는 이로 하여금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였다.



**【작품 4】** 무제, 고목, 합성수지, 대리석 가루, 500x320x880mm, 2003

#### 【작품 4】 무제

크 기 : 500x320x880(mm)

재 료 : 나무, 대리석가루, 합성수지

제작년도 : 2003년

제작방법 : 1) 고목의 썩은 부분들을 깨끗이 파낸다.

2) 합성수지를 고목에 채웠을 경우 새어나지 않도록 목공용 본드로 표면 처리를 한다.

3) 투명 합성수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부어준다.

4) 합성수지를 부을 때 마다 '알'들을 적당히 배열한 뒤 부어준다.

생명을 자라게 하고 태어나게 하는데 물은 꼭 필요한 것이다.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는 엄마의 뱃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양수와 같이 태어난다. '알'속의 새 생명들이 껍질을 깨고 나올 때, 생명들의 몸은 촉촉하게 젖어 있다. 식물도 물이 없이는 자랄 수 없다. 처음 고목을 파내었을 때, 생명들이 존재하는 곳은 물기가 배어있었다.

이처럼 물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자라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 작품은 '물'이라는 생명의 필요 요소를 고목과 알에 결합하여 순환적 생명력의 또 다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작품 5】 무제, 동, 740x480x550mm, 2003

## 【작품 5】 무제

크 기 : 740x480x550(mm)

재 료 : 동

제작년도 : 2003년

제작방법 : 1) 점토로 작업을 한 뒤 석고를 성형한다.

2) 석고틀은 잘 견딜 수 있도록 규석을 섞어서 성형한다.

3) 석고틀에 산소 용접기를 사용하여 동을 직접 녹여 떨어 뜨리며 완성한다.

4) 동은 폐 파이프, 동선을 사용한다.

알 자체에 변형을 준 작품으로 엄마가 아이를 가졌을 때 느끼는 태동의 이미지를 주어 생명력을 느끼게 한 작품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알'들은 껍질들이 석회질로 덮혀 있어 유동성을 가지지 못하나 생명의 움직임, 역동성, 신비로움 등의 느낌을 주기위해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은 하나하나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어오던 '알'을 크게 변형시킨 것으로 원형, 타원의 완벽한 틀에서 벗어나 조형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알'의 주원료가 되어왔던 합성수지와 대리석 가루의 사용에서 벗어나 동을 직접 녹여 그 표면 처리에 있어서도 깔끔히 처리하기 보다 거칠게 표현함으로써 '알'의 태동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작품 6】 무제, 동, 600x480x900mm, 2003

**【작품 6】 무제**

크 기 : 500x300x800(mm)

재 료 : 동

제작년도 : 2003년

제작방법 : 1) 동을 석고틀에 녹였다.

2) 새로운 싹에는 녹색의 질산구리로 착색을 했다.

자연속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움직임을 표현한 작품이다. 무언가를 피우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그 순간의 모습이다.



【작품 7】 무제, 동, 미송, 가변설치, 2003

**【작품 7】 무제**

크 기 : 가변설치

재 료 : 동, 나무

제작년도 : 2003년

제작방법 : 1) 나무는 갈라진 부분을 중심으로 깎아서 '알'의 형태를 제작하였다.

2) '알'있는 동판을 두드려 만들었다.

3) 동 본연의 색깔과 질산구리를 사용한 색을 착색하였다.

알의 갈라진 틈 사이로 새로운 싹이 돋아 넝쿨을 이루는 이미지이다. 이는 새로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이미지로 잎의 형태도 '알'의 형태에서 착안하여 제작하였다.



【작품 8】 무제, 동, 오석, 420x315x360mm, 2003

**【작품 8】 무제**

크 기 : 420x315x360(mm)

재 료 : 오석, 동

제작년도 : 2003년

제작방법 : 1) 알의 형태로 돌을 깎는다.

2) 돌위의 생명의 흔적들을 정으로 다듬은 다음, 돌표면을 광택처리를 한다.

3) 흔적들을 다시 한번 정으로 다듬어 주었다.

그리스 로마신화를 보면 대지를 어머니로 이야기한다. 즉, 땅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곳이다. 논, 밭, 과일, 인간 등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작품은 땅이 생명을 탄생시키면서 남긴 흔적속에서 태어난 생명들이 또 다른 생명들을 탄생시키는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 Ⅲ. 결 론

예술에 있어서 자연은 풍부한 영감의 보고이다. 자연의 섭리는 예술에 있어서 정신을 제공하며, 자연의 여러 형태는 예술에 있어서 조화로운 조형성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미의식은 예술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됨을 알 수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도 자연은 중요한 미적 영감으로 작용하였다. 자연에서 얻은 순환적 생명력의 이미지는 자연현상의 근본이 되는 순환체계를 알게 하였고 이 순환성을 세상의 이치로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되는 등의 자연의 순환성은 더 나아가 일상속에서 생명의 탄생과 죽음을 통해 생명에 대한 존재감과 소중함을 깨달게 하였다. 이러한 순환을 통한 생명력의 이미지는 본인의 조형활동의 근간을 마련해 주었다.

따라서 작품속에서는 '알'과 '나무'의 상징적인 대비를 통해 파생되는 생명력을 이미지로서 조형화 하였으며, 불교사상의 찰나생멸(刹那生滅)을 통한 윤회로서 그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였다.

본 작품들은 결국 잊고 살았던 자연생태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순환성을 세상의 이치로 바라보게 하였고, 그곳에서 얻어지는 순환적 생명력의 이미지의 조형화 작업을 통해 본인의 조형활동은 물론 예술속에 잠재된 생명력을 표현하는 과정으로 유도 하였으며, 앞으로 조형활동에 있어서도 보다 다양한 생명력의 표현은 중요한 예술적 주제로서 생각하게 하였다.

## 참 고 문 헌

1. 이광미, 『시각 예술의 이해』, 지구 문화사, 1996
2. 데미온 키온, 『불교와 생명학』, 허남결 옮김, 불교 시대사, 2000
3. 한국 불교 환경 교육원, 『동양사상과 환경문제』, 도서출판 모색, 1996
4. 광철한, 『불교 길라잡이』, 시공사, 1995
5. 모로하시 데즈시, 『공자, 노자, 석가』, 심우성 옮김, 동아시아, 2000
6. 최정인, 『알기쉬운 불교교리』, 불교시대사, 2004
7. 한석우, 『입체조형』, 미진사, 2001
8. 프리초프 카프라,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이성범, 김용정 옮김, 범양사 출판부, 1990
9. 심윤희, 『흙을 소재로 한 자연의 생명력 표현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10. 오정실, 『숲 이미지를 통한 심상적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11. 장현숙, 『생성과 소멸의 조형화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석사학위 논문, 2002
12. <http://opendic.naver.com>
13. 한국 대백과 사전, 동서 문화, 1996

# ABSTRACT

The Study About Modeling The Power Of Life In Circulation

- centering around the work -

**Na, Su-Jung**

**Department of Sculpture of**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ower of life is the source of life belonged to all the lives, or the origin of the power. For artists, 'the power of life' is represented the most when artists' aesthetic experiences are emitted from their inside to glorify works, lighting on themselves.

For this work and thesis, there is an object of a coherent interest, which is imagery expression of the power of life through circulation. It examines each meaning of the images of life, and give concrete shapes to the images of the power of life in circulation.

This thesis is composed of three chapters, centering around my work: the perspective about the theme and its spiritual background, the methods of expression in configurating, and explanation about the individual sculpture.

Chapter 1. Introduction explains the perspective in setting the theme and

the process signifying the work with the aesthetic experience, along with the goal, the methods, and the scope of the study.

Chapter 2. Body describes the process in the spiritual background of the work to express the images of the power of life whose nature from the concrete experiences are re-born as the meanings of extinction and creation through the transmigrationism of Buddhism. And it includes the methods of expression and the materials. Also, there are the photographs, the methods of production, and the contents for the individual sculptures.

Chapter 3. Conclusion contains the summary of the thesis and the world of my art works.